

(노래) 말비나 레이놀즈 - "작은 상자" 번역

심장중의강철

<https://youtu.be/n-sQSp5jbSQ>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이며 제가 사회주의란 것에 처음 관심주게 한 노래입니다.

음.... "작은 상자"는 말비나 레이놀즈가 1962년에 작곡한 노래입니다. 63년에는 그의 동지인 피트 시거가 어레인지했었던 노래입니다.

말비나 레이놀즈는 미국의 포크 싱어송라이터이자 사회개혁가입니다. 그의 부모님들은 1차 세계대전 당시 반전운동을 펼치던 유대계 사회주의자이자 이민자였죠. 그녀는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으며 34년에는 목수이자 노동운동가였던 윌리엄 레이놀즈와 결혼하였고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도 땀습니다.

이런 그녀가 노래에 빠진 것은 40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노래를 하면서 새로운 삶을 만끽하였죠. 앞서 말한 피트시거등을 만나며 사회운동에 투신하고 그런 가요를 만들기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상자"는 그 중에서 그녀의 첫 사회운동 노래였습니다. 빅토르 하라도 칭찬할정도의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의 배경은 FCNL(Friends Committee on National Legislation)에서 노래를 부르기 위해 출발했던 그녀가 그 장소로 가는 길에서 어디가 회의 장소인지 찾지 못할정도로 모든 집이 똑같이 생겼던 것에서 감명을 받아 쓴 곡입니다. 개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고 똑같았던 것에서 말입니다. "다른 삶"을 산다고 하지만 "결국 남들과 같은 길을 걷는 것"처럼요

1절

작은 상자들이 산허리에 있네

작은 상자들은 엉터리[1]로 만들어졌다네

작은 상자들은 산허리에 있네

작은 상자들은 모두 똑같이 생겼다네

2절

상자들은 초록색도 분홍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다네

하지만 모두다 엉터리로 만들어졌다네

전부 같아보이게 말이야

3절

그리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대학을 나온 사람이라네

그러나 상자로 들어가고선

모두 똑같이 나왔다네

4절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아니면 기업의 임원도 있다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엉터리로 만들어졌다네

다른거 없이 똑같은 이들이지

5절

그들은 모두 골프를 즐기고있고

마티나[2]를 마시고나 있고

그리고는 아이를 낳고서

아이를 학교로 보내네

6절

아이들은 여름 캠프에 가고

그리고는 대학교를 갔다네

그리고 아이들도 상자에 들어가고선

모두 똑같아져 나왔다네

7절

애들은 바쁜 세상을 살아가다가

결혼을 하고서 가정을 이룬다네

영터리로 만들어진 상자 안에서 말이야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른거 없이 똑같아 보인다네

8절

상자들은 초록색도 분홍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다네

하지만 모두다 영터리로 만들어졌다네

전부 같아보이게 말이야

다른 사람과 같은 삶만 사는 순종적인 삶보다는 자신의 삶을 진짜로 개척할 수 있는 삶을 사는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1]ticky-tack. 잉터리 재료, 싸구려 재료, "단조로운, 획일화된"

[2] 술 이름.